

이종오 연구소장
기술연구소

1. 귀사의 대표제품인 내비게이션 SW “루센맵”을 소개해 주십시오.

루센 : Rousen, 차세대 멀티 플랫폼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루센은 루트(Route)와 센스(Sense)의 복합어로 '나의 운전을 더욱 편하고 신속하게 도와주는 센스있는 내비게이션'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발견이라는 컨셉으로 만들어진 루센은 원하는 곳 어디서나 쉽고 자유롭게 다양한 콘텐츠와 기능 등을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제품으로서 시터스의 글로벌 지향적인 목표를 실현시킬 시터스의 가장 핵심적 솔루션입니다.

출시 이후 현재까지 30여 개의 단말기에 맵 소프트웨어로 탑재될 만큼 새로운 전자지도에 목말라 하던 내비게이션 제조업체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면형화가 완료된 전국 지도 및 국내 최대 수준급에 속하는 풍부한 POI DB, 지번 데이터, 강력한 전화번호 DB, 그리고 전국 구석구석의 안전운행 정보 등의 충실한 인프라 DB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료도로 포함 여부는 물론, 피해서 가고 싶은 곳을 정할 수 있는 회피지 선택기능, 내가 선호하는 도로를 선택할 수 있는 선호도로 선택기능, 각 경유지 사이의 탐색 방법을 다르게 선택할 수 있는 구간별 다중탐색 기능을 적용시켜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최적의 경로탐색으로 길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그래픽 엔진 적용으로 디스플레이 속도가 향상되었으며 복잡한 교차로는 실제 교차로를 보는 듯한 입체적인 이미지로 처리하여 한차원 높은 직관성을 제공하며 자유로운 3D 시각조절기능 등 고객의 안전운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엿보이는 제품입니다.



<이정표 기능이 적용된 루센 1.5v>



<건물색상 및 패턴이 적용된 3D화면>

2. 지난 2월 중국 DMB 방송 사업자 북경위에롱사와 티펙 서비스 독점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중국 시장 진출의 성공 요소는 무엇입니까?

시터스는 4년 전부터 글로벌 내비게이션 시장 진출을 목표로 현지 SW 개발 및 파트너사 발굴을 위해 준비해 왔습니다. 이렇게 중국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었던 배경은, 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맵기술력이라고 굳게 믿고 오로지 SW만을 끝까지 고집하는 선택과 집중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내비게이션은 그 나라의 지도 특성에 맞게 각각 차별화돼 있기 때문에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SW는 우리가 만들고 단말기는 현지에서 만드는 전략으로 중국을 공략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철학을 바탕으로 중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했으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해외사업 즉 세계경영에 더욱 매진한다는 복안입니다.

3. 내비게이션 맵 제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며, 귀사는 그 요소를 확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우수인재가 맵제작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터스는 소프트웨어만 집중하기 때문에 기술개발과 인건비가 주를 이룹니다. 고급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대내외적으로 안정적인 브랜드 및 회사 인지도가 필요합니다.

2007년을 홍보마케팅 원년의 해로 계획을 잡고 누구나 입사하고 싶은 회사로, 내비게이션 시장에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4. 향후 내비게이션 SW 분야의 전망과 이에 따른 귀사의 전략이나 비전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방향은 "컨버전(Conversion, 프로그램 호환성)입니다. TV, 게임, 노래방 등 전세계적으로 모든 프로그램이 다 통해야 합니다. 택시 관제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으며 택배, 물류, 무인 자동차까지 바라보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향후 루센은 다양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고객을 늘려간다는 방침입니다. 즉 길을 가다가 밥을 먹고 싶으면 맛있는 식당의 위치를 알려주는 등의 콘텐츠를 강화해 고객들의 수요를 끊임없이 창출해낸다는 계획입니다.

내비게이션 SW 시장은 지난해에 비해 올해 150%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국내사업에서 해외사업으로 무게를 실는 원년으로 삼고 올해에는 중국에 이어 유럽과 베트남, 러시아와 호주에도 현지법인을 세워 해외 진출을 본격화해 해외에서만 10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릴 계획입니다.

또 해외사업에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시터스는 앞으로도 내비 SW 전문회사의 길을 절대 외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비 SW만으로 성장하는 회사, 국내 국한된 사업이 아닌 세계경영에 깃발을 꽂는 회사로 성장하는 것이 시터스의 미래상입니다.